

2) 전라남도 건설종합계획

1982~199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추진된 전라남도 건설종합계획에서는 순천을 교육·문화·상업과 여수~여천~순천 연담도시의 서비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광주권과 부산권을 연결하는 교통기능 및 농수산물 유통도시로 개발하여 광양만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기반시설을 확보키 위한 광양과 연계개발을 꾀하였다. 그리고 광주~순천~여천 공업단지의 산업개발촉에 따른 권역중심도시로서 제반 기반시설의 강화를 전제로 하는 개발전략을 책정하였다. 시가지개발과 정비방안으로는 기존 시가지 서측의 혼재된 도심기능을 질서 있게 분산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봉화산 동측 일대를 부도심(副都心)으로 개발하여 동서개발축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광주~순천~여천~여수를 연결하며, 순천의 중심지를 관통하는 통과도로를 서측 신시가지 외곽지역으로 우회시키며, 장차 국가적인 차원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시가지 내부를 관통하는 철도와 순천역을 신시가지 외곽으로 이전하고 이와 관련된 시가지개발을 유도토록 하였다. 신시가지에는 교육·문화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그 내부에 종합대학을 입지하도록 하였다. 물자수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시가지 남측 여수 방향에 대규모 지역유통기지를 건설토록 하였고, 기존 시가지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부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양측에 대상상업기능(帶狀商業機能)을 부여·육성토록 하였다.

최근에는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확정에 따라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1992년부터 추진되는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광양만권 공업벨트지대의 기계·금속·제철 등 중화학공업지대, 광주대도시권, 군장산업지대(群長産業地帶)의 연결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순천~장계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호남·남해고속도로를 확장하며, 그 기간에 장성~나주~순천~광양간의 고속도로 건설도 검토하였다. 이처럼 발전축의 진전을 촉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하여 교통망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우선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다. 특히 순천은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기능과 상업·유통업·통신·서비스업·행정 등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중추관리형 도시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2000년대에는 순천과 주변의 광양·여수·여천 등이 연담도시권을 거대하게 형성케 되고,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며, 순천의 인구는 23만 명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계획에서는 지역산업의 발전과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도건설종합계획에서 계획을 수립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교육·연구·업무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순천대학과 연계된 교육연구단지의 조성, 산학협력체제의 구축과 생산기술의 집적을 위한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여기에는 금융·정보통신·문화·서비스기능과 기업본사·고급사무실·법률서비스 등이 집적된 업무단지, 첨단행정타운의 조성이 포함된다. 특히 업무단지 주변은 외국인이나 자동차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고 비관세 상품의 보관·처리·가공·재수출의 허용 등을 위한 특정지역의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해공업벨트지대의 주택수요에 대비한 신도심지의 개발, 종합도시여가시설(urban resort)의 배치, 유통단지의 신설, 공공시설의 확충, 외국인 기술자와 관리요원을 위한 생활시설의 배치, 국제 컨벤션센터의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